史記卷二　夏本紀第二
漢　太　史　令　龍　門　司　馬　遷
宋　中　郎　外　兵　參　軍　河　東　裴　駰　集
唐　國　子　博　士　弘　文　學　士　河　內　司　馬　貞　索
唐　諸　王　侍　讀　率　府　長　史　張　守　節　正
皇明朝列大夫國子監祭酒臣劉應秋
承直郎　國子監司業臣楊道賓等
勅重校刊
夏禹　謚法曰、受禪成功曰禹、名曰文命、索隱曰、尚書
教命不云是禹名、太史公皆以放勳重華
文云、虞氏舜名、則堯舜禹湯皆名矣、蓋古
皆以名、後代因其行迹而爲謚、其實禹
少昊已前、天下之號象其德、顓頊已來、王
名、又按系本、鯀取有莘氏女、謂之女志、是
云、鯀禹所封國、○正義曰、帝王紀云、

김영수

『사기(史記)』는 왜 위대한 역사서인가?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사기(史記)』는 왜 위대한 역사서인가?

사마천의 노여움을 사서 궁형을 받은 사마천, 그런 그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사기』! 사마천의 『사기』가 다른 역사서보다 뛰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기』에 담긴 혁신적 사상과 뛰어난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알아본다.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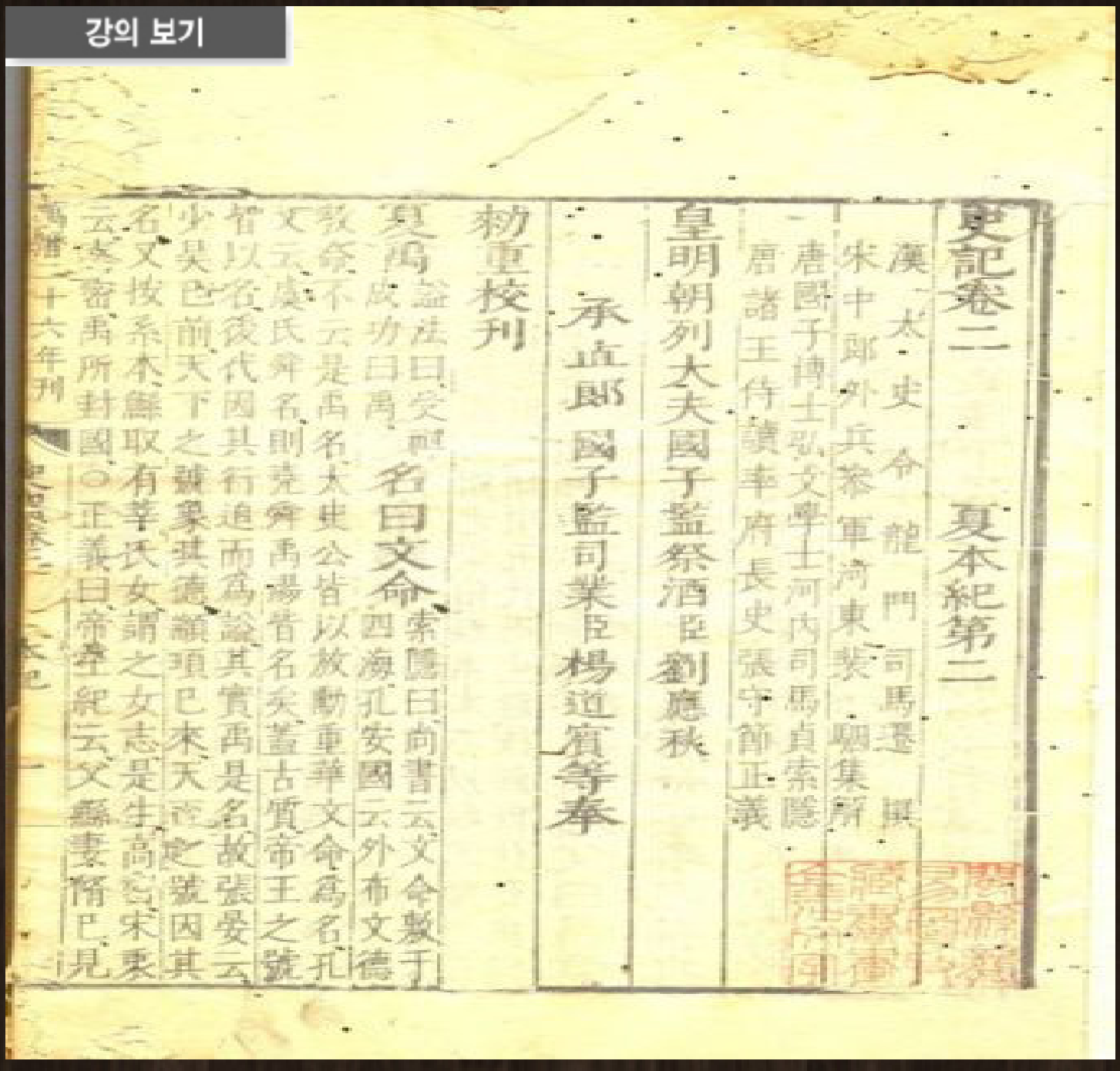
- 사마천의 결연한 의지의 산물, 『사기』
- 사마천의 『사기』가 다른 역사서와 다른 이유
- 『사기』에 담긴 혁신적 사상
- 『사기』의 뛰어난 역사적 기록: 진시황릉

강사 소개

- **김영수**

  고대 한중 관계사 전공.
  중국 전문 저술가. 사마천학회 회원
  저서 『지혜로 읽는 사기』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 『난세에 답하다』 외 다수

강의 보기



- 제목 : 『사기(史記)』는 왜 위대한 역사서인가?
- 강사 : 김영수(중국 전문 저술가)
- 구성 : 21분

지식 노트

궁형(宮刑)

고대 중국에서 행하던 5가지 혹형 중 하나. 남자는 생식기를 거세하고 여자는 질을 폐쇄하여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사형에 준하는 극형이었다.

지식 노트

은허(殷墟)

지금의 중국 하남성, 안양현에 위치. 고대 상(商)나라 수도 유적으로 널리 알려짐

Attribution: Naus @ en.wikipedia.org

지식 노트

갑골문(甲骨文)

중국 은나라 때 점복의 내용을 거북 껍질과 짐승 뼈에 새긴 문자. 현재까지 알려진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강의 노트

사마천(司馬遷, BC 145?~BC 86?)

전한시대의 역사가, 『사기(史記)』의 저자. 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꼽힌다. 흉노에게 투항한 이릉(李陵)을 변호하다가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궁형을 받았다.

사마천의 파란만장한 삶이 낳은 '격이 다른' 역사서 『사기』

사마천은 장군 이릉(李陵)이 흉노족에게 항복한 사건을 변호하다 한(漢) 무제의 미움을 사 사형을 받았다. 사형을 피하려면 돈을 내야 했지만 돈이 없던 사마천은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궁형을 택했다.

사마천은 왜 궁형을 자청하면서까지 『사기』를 완성했을까?

사마천은 BC 99년,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노년에 가까운 49세에 궁형을 받는다.

사마천이 '자살'로 학자의 양심과 죽음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치욕스러울 뿐 아니라 생존조차 확신할 수 없는 궁형을 택한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자신이 저술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사형만은 면하고자 했다.

사마천은 감옥에서 세상사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고찰을 했고 이를 자신의 저술에 녹여냈다.

사마천은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뿐 아니라 당대의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자의 편에서 부당한 권력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양계초(梁啓超, 량치차오, 1873 ~1929)
중국 청말 중화민국 초의 사상가, 문학가. 언론, 교육 등의 계몽, 혁신 운동을 통해 중국의 근대화에 힘썼다. 여러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며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사마천 이전에 역사는 없었다.” ”사마천은 역사의 조물주” – 양계초(1973~1929)

춘추 · 전국시대(BC770 ~BC221)

수많은 제후국들이 반목하던 정치적 혼란기였으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출현과 함께 뛰어난 학문 · 사상이 발달했던 중국의 고대 시기. 기원전 221년 진(秦)시황의 통일로 마무리되었다.

140~170개의 제후국들은 춘추전국시대 550년을 거치면서 ‘진(秦)’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의 부족 국가에서 영역을 넓혀 확장했던 로마와 달리, 춘추전국시대에서 진나라로 이행한 중국의 역사는 ‘수렴하는 역사’이다.

다양한 인간을 다루고 있는 『사기』

『사기』에 등장하는 4000여 명의 인물 중 주인공 격인 제왕, 제후가 290여 명인데, 이들 중 120명 이상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사마천은 수많은 직업을 『사기』에 그려냄으로써, 역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정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삶의 궤적을 담으려 노력하였다.

『사기』는 그 문학적 필체 때문에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에 논란이 많았다.

『한서(漢書)』

한나라의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잇는 중요 사서이며 기전체(紀傳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후한의 역사가 반표(班彪, 3~54), 반고(班固, 32~92)가 대를 이어 저술했고, 「표」(表)와 「천문지」(天文志)는 반고의 누이 반소(班昭, 45 ~ 117?)가 완성했다.

사마천은 130권(52만6천500자)으로 이뤄진 『사기』의 가장 마지막 권에 자기 가문의 이야기와 집필 동기를 간략하게 적었다.

「화식열전」(貨殖列傳): 기원전 중국의 부자들과 그들의 이재법(理財法)에 관한 기록

소봉(素封): 봉토(封土)는 없으나 재산이 많은 큰 부자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왕과 같은 안락한 삶을 누리라는 사마천의 어조는 지배층의 많은 반발을 샀다.

반마논쟁, 마반논쟁: 반고가 사마천을 비판하며 떠오른 논쟁

물질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논한 사마천을 속물이라 칭하며 비판했던 유학자나 성리학자들도 있었다.

”무릇 사람들은 자기보다 열 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지만, 백 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천 배가 되면 그의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그의 노예가 된다.”
– 사마천, 『사기』, 「화식열전」

”창고 안의 물자가 넉넉해야 (백성들이) 예절을 알며,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
– 사마천, 『사기』, 「화식열전」

「평준서」(平準書): 『사기』 중 한나라 건국부터 무제까지 100여 년의 국가 재정 정책과 경제 발전 과정을 서술한 책

「식화지」(食貨志): 반고가 지은 역사서 『한서』에 실린 각 왕조의 재정 관계를 기록한 편

『사기』의 12본기(本紀) 중 앞의 3개의 본기–오제본기, 하본기, 은본기–는 약 100년 전까지 허구로 여겨져 학문적 연구가 미흡했다.

공화원년(BC841)

중국 주(周)나라 려왕(厲王)의 학정에 백성들이 난–국인폭동(國人暴動)–을 일으켜 왕을 몰아내고 몇몇 대표를 세워 나라를 운영하던 시기. 『사기』에 기록된 기준 연도로 중국 역사에서 연도 확인이 가능한 최초의 시점

1899년 '왕희영'이라는 약사가 뼈에 새겨진 글자인 갑골문(甲骨文)을 발견

왕국유(王國維, 왕궈웨이, 1877~1927): 청나라 말, 중화민국 초의 고증학자
라진옥(羅振玉, 뤄전위, 1866~1940): 고증학, 금석학의 일인자. 갑골문자 해석 시도

갑골문의 발견과 해석에 따라 『사기』의 본기와 그 진실 여부를 대조할 수 있게 되었다.

병마용갱
진시황릉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하 갱도로, 진시황의 무덤을 수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약된 6000개 이상의 병마용이 매장되어 있다.

『사기』에 기록된 진시황제의 무덤에 관한 내용들은 이전까지 대부분 허구라 여겨졌으나 진시황릉의 발굴은 『사기』의 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의 시신을 안치하면서 천문도(별자리를 그린 그림)와 지형도를 그리면서 강과 바다에는 수은을 흘려보냈다.

진시황릉의 봉분에 함유된 수은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해본 결과, 『사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수은을 매장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시황릉이 아직 도굴되지 않았으며, 『사기』의 기록이 허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기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마천은 청년 시절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의 책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었다.

학습 요약

- 사마천은 죽음보다 치욕스럽다는 궁형을 받으면서 평생의 숙원이었던 역사서 편찬을 지속하였으며 그러한 그의 의지는 오늘날까지 큰 감동을 준다.

- 사마천은 『사기』에서 물질적 실리의 추구, 당대의 왕 비판 등 당시의 지식인으로는 매우 혁신적이었던 사상을 보여준다.

- 『사기』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천여 개가 넘는 직업군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마천이 인간 군상을 폭넓은 관점에서 그려내고자 했음을 반증한다.

- 현대에 들어 발견된 새로운 유물이나 과학적 자료는 『사기』의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뛰어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문 퀴즈

1. 다음 작가들의 저서들 중 성격과 기능이 가장 다른 하나는?

(1) 사마 천(司馬 遷)의 『사기』(史記)
(2) 공자(孔子)의 『춘추』(春秋)
(3)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4) 굴원(屈原)의 『초사』(楚辭)

2. 다음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중국 (A)시대의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은 48세의 나이에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이릉(李陵)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 당시로써는 죽는 것보다 치욕스러운 형벌인 (B)을 받았다. 그는 죽음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역사서 편찬을 완성하기 위해 (B)을 받고 중국 최고의 역사서 『사기』(史記)를 집필한다.

(1) 전한(前漢) – 궁형(宮刑)　(2) 북송(北宋) – 월형(刖刑)
(3) 남송(南宋) – 궁형(宮刑)　(4) 전국(戰國) – 월형(刖刑)

인문 퀴즈

3. 다음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올바른 것은?

한자를 사용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역사서를 서술하는 한 형식으로, 군주의 정치에 대한 「본기」(本紀), 제도·경제·지리·문화 등의 항목으로 구분된 「표」(表)와 「지」(志), 한 인물의 전기인 「열전」(列傳) 등으로 구성.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삼국사기』, 『고려사』 등이 이 형식으로 편찬되었다.

(1) 편년체(編年體)
(2) 강목체(綱目體)
(3) 기전체(紀傳體)
(4)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인문 퀴즈

1. (4) 2.(1) 3.(3)

1. 초사는 시가집, 나머지는 역사서이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http://zh.wikipedia.org/wiki/File:Records_of_the_Grand_Historian.jpg

지식노트

- http://en.wikipedia.org/wiki/File:Sima_Qian_(painted_portrait).jpg
- http://en.wikipedia.org/wiki/File:Yinxu.jpg
-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OracleShell.JPG

『사기(史記)』는 왜 위대한 역사서인가?

강사: 김영수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판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ArtnStudy.com